

임실군, “개미지게 놀아보자”

관광두레협의회, 27일까지 임실치즈 발상지 성가리서 ‘개미진마켓×할로윈’ 운영

임실군 관광두레협의회가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임실을 성가리에 위치한 임실참고 1964 카페 일원에서 ‘2024년 개미진마켓×Halloween’을 운영한다.

관광두레는 지역 고유의 특색을 살린 관광사업체가 창업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이다.

개미진마켓은 임실군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에서 개발한 지역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한 프리마켓이다.

임실의 로컬 문화와 음식, 상품 등을 ‘개미지다’의 콘셉트에 맞춰 이색적인 이벤트 준비와 트렌디한 연출로 문화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개미진마켓은 5개의 주민사업체와 2개의 지역업체가 참여한다.

특히 10월 말 할로윈데이를 앞두고 카페 일원에 할로윈 분위기를 연출하여 △백과이어 블러드 토마토 주스 △해골사과 존독젤리 △마녀상점 몬스터 타투 등 더욱 특색있는 프로그램과



‘2024년 개미진마켓 X Halloween’ 포스터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개미진마켓이 열리는 ‘임실참고 1964’ 카페 인근 풍터는 임실치즈의 아버지인 지정환 신부가 최초로 자리 잡은 마을인 성가리에 있다. 성가리는 지정환 신부가 1964년부터

마을 주민들과 함께했던 삶과 이야기가 있는 곳으로, 현재 최초의 치즈 공장이다.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지 신부의 별가에 이름을 딴 ‘임실 디디에 카페’로 변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이번 개미진마켓은 성가리에 있는 임실치즈 공장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동네 주민들에게 즐길거리와 특색있는 볼거리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임실에는 과일나무, 로컬푸드 식료품, 임실엔벨링살롱, 임실레드랩, 임실에플드리, 박사골영농조합법인, 재갈재갈 창작공방 총 7개의 주민사업체가 활동 중이다.

심 민 군수는 “우리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개미진마켓을 통해 지역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임실의 지역적 특색이 돋보이는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의 상품들이 보다 널리 홍보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긴축재정으로 재정 건전성 유지

남원시 “보통교부세 추가 삭감 예상… 긴축재정 불가피”

남원시는 기획재정부가 9월 발표한 국제수입 재추계 결과 2024년 보통교부세가 약 300억원의 추가 삭감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긴축재정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지난해 여대금 세수 핑크로 인해 남원시는 약 541억원 이상의 보통교부세가 삭감되었으며, 올해도 추가적인 세수 결손이 예고되면서 남원시의 각종 사업 진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남원시 전체 수입의 45%를 차지하는 주요 세입 재원으로,

필수 운영비와 복지사업, 인프라 투자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방교부세의 감소는 지역 주민의 생활 질 향상에 기여하는 다양한 서비스 및 이에 따라 남원시는 긴축재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액만큼 편성하는 등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해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연례 반복적인 사업 중 효과가 떨어지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여 예산을 조정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의 경우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주

필수 운영비와 복지사업, 인프라 투자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방교부세의 감소는 지역 주민의 생활 질 향상에 기여하는 다양한 서비스 및 이에 따라 남원시는 긴축재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액만큼 편성하는 등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해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연례 반복적인 사업 중 효과가 떨어지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여 예산을 조정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의 경우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주

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 위주로 최소한으로 편성할 예정이고, 유사·중복사업 정비 유사·중복사업 및 과잉 투자된 보조사업 등을 일괄하여 가용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긴축재정으로 확보된 예산은 취약계층 보호, 공공 서비스 강화,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안전망 구축 등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복지사각지대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계층 약자복지 지원 확대와 함께 제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방안 마련 등 사회복지망 구축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최경식 시장은 “긴축재정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용될 예정이다.

정보는 남원시의회 홈페이지 내 행정사무 감사 의견접수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방문 및 우편접수(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의회사무국)를 통해 가능하다.

김영태 의원은 “시정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사무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가 제269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의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해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시민제보를 받는다.

행정사무 감사의 제보대상은 남원시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 예산낭비

사태, 기타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익명도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보자의 신분은 비공개로 처리되고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에 반영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순창군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된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순창 장류’ 세계 한인 기업인에 알려

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서 지역 농특산물 홍보

순창군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된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는 한인 CEO들과 기업인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순창군은 직거래장터를 통해 전통 장류 문화의 정수를 선보이며 세계 각지의 한인 기업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직거래장터에는 전통 방식으로 제조된 고추장, 된장을 비롯해 절임류 제품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으며, 특히 이번 가을을 맞아 처음 선보인 ‘육관반’은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품질로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아울러, 행사장에서는 누룽지, 배도라지 증, 하루홍삼까지 다양한 시식

행사가 마련됐으며, 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소풍몰인 행복순창몰 신규 가입 고객을 위한 특별 할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해 온라인 판매 플랫폼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대회 참가자와 해외 바이어들은 순창군의 전통 장류 제조 기술과 품질 관리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아울러 대를 이어 전수돼 온 발효 비법으로 만든 고추장과 된장의 깊은 맛에 감탄을 표했으며,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는 상담도 활발히 이뤄졌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청정 순창에서 생산된 장류와 절임류를 홍보하고 한국의 맛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직거래장터 행사를 마련해 순창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매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임실군의회 제341회 임시회 폐회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는 24일 심민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4일간의 짧은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당초 접수된 36건의 안건 중 임실군 갑질·을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30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절차상 하자 및 추가 논의가 필요한 안건 6건은 부결·보류 처리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양주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종규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장종민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에 군정질문을 열정적으로 준비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게 감사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임실군의회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성숙한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며 “우리 의회가 군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고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42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곤충시장 활성화 유지 위한 간담회 가져

남원시는 지난 22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농업생물부 곤충양잠산업과)과 곤충 시장 활성화 및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간담회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곤충산업 거점 단지 조성 사업 공모에 남원시가 지난 5월 9일 최종 선정됨에 따라 곤충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되었으며, 남원시장 측 산과, 국립농업과학원 곤충양잠산업과, 남원사이오산업 연구원, 남원 곤충사육 농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우선 남원시 곤충산업 거점 단지 조성 사업 계획 및 추진 경과 설명 후 궁금한 사항이나 곤충산업 발전 방향 의견 제시 등 격의 없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남원시 곤충산업 거점 단지 조성을 통해 곤충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으며, 남원 관내 곤충사육 농가가 참석해 평소 애용 곤충사육 농가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시에서는 곤충산업 거점 단지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특화된 수익모델 창출과 안정적 판로 확보, 곤충산업 소재 개발이 우선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체계적 빈집 정비 추진… 관련 조례안 통과

임실군이 지난 22일 열린 제34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임실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돼 체계적인 빈집 관리를 추진한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임실군 지역에 산재한 빈집을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빈집 실태조사를 2023년 10월 착수하여 올해 9월 완료했으며, 실태조사 결과 850여 중 630호가 빈집으로 판정됐다.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임실군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용역과 빈집 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N치즈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벨기에 출신 지정환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